

2025 사순절 동부선린 일일묵상

4월 15일(화)



LENT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여정

LENT

요한복음 12:20~36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

LENT

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의 쫓겨나리라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LENT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헬라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데 반해, 당시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자고 하는 모습은 대조를 이룹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하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LENT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24절).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32절).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들리는 것, 즉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다윗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가 올 것으로 믿고 기대하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고난받고 죽음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구원의 길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 해야 하는 것일

LENT

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는 길이기
예수님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승리와 성공의 길이라기보다는 ‘낮아짐’과 ‘내어
줌’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
며 걸으신 예수님의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힘겹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어떤 어
둠도 우리를 덮치지 못 할 것(35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
다. 예수님이 걸으신 구원의 길을 묵상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
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소망합니다.

LENT

기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보이신 구원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눈으로 보다오르는 건강한 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동부선린교회

담임목사 곽 선 근

천현성전 | 12956 하남시 하남대로654번길 22-10
새능성전 | 13025 하남시 산곡동로86번길 42
사무실 031)793-3179 팩스 031)793-3172
www.dbsunlin.com



홈페이지

www.dbsunlin.com



YouTube

동부선린교회

검색



유튜브